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내수면어업계와 탐정호 쓰레기 수거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장병일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9-24 09:31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서봉수 지사장)는 23일 논산시 탐정저수지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추진했다.

‘쓰담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호숫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이는 깨끗한 환경을 다함께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2023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캠페인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및 탐정호 내수면 어업계 40여명이 참여해 최근 잦은 우천으로 늘어난 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며 환경정화에 힘을 보탰다.

서봉수 지사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호숫길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